

바나나좀나방(*Opogona sacchari*)의 국내 발생상황 및 미기록종 보고

김인수, 권기면¹, 박영미¹, 박규택²

국립식물검역소 소독관리과, ¹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,

²강원대학교 자연생물환경학부

곡식좀나방科(Tineidae), 고운머리좀나방亞科(Hieroxestinae)에 속하는 종으로 열대와 아열대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북미와 중남미지역으로 확산되었다. 아시아에서는 19세기초 중국남부에 분포한다고 했으나 이 해충의 최근 발표 기록은 아직 없다.

미국, 유럽에서 수입항 검역시 행운목, 유카 등의 관상식물에서 수시로 검출되며, 정착시 온실에서 재배되는 관상식물류, 고추, 가지, 옥수수, 바나나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충으로 알려지고 있다.

국내에서는 1998년 9월 16일 전남 무안의 행운목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, 미국 스미소니언연구소(David박사)의 동정결과 *Opogona sacchari*로 밝혀졌고, 1999년 전국 29개시군 행운목 등 7종의 관상식물에서 발생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.

그 동안 채집된 표본을 중심으로 외부 형태적인 특징을 검토해 본 결과 유충의 특징은 몸 내부가 보일 정도로 불투명한 막질로 되어 있으며, 번데기의 복부 끝부분에 두 개의 굵은 갈고리(hook)가 보인다. 성충의 앞날개는 밝은 회갈색 무늬가 횡으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.